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중에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6.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4)

2010년 5월 1일 6회분

[사45:21]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45:18]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序;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탄의 노래를 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념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중이다.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 기념을 공부하였다. 그것은 존재 양식의 기념, 창조주로서의 기념, 심판주로서의 기념이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기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 가지 확실한 기념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기념 칭호를 살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다.

### 1. 진실과 관용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시는가?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라는 많은 길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독선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이런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이 생겼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하고 어떤 도덕적 선이나 어떤 종교에라도 구원의 길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해오던 기독교가 그것이 다른 종교들과 같등과 대립과 불화를 일으킨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추구하는 목적은 다 같은 것이며 결국 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주장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초파일에는 스님이 명동 성당에 와서 설법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주교가 조계종에 가서 설교를 한다.

어떤 목사님은 2009년 5월 3일에 어느 사찰 법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하는 순서를 한 것이 아니고 108배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다. “108배로 예배를 대체한다 해서 하나님께 결례되는 것도 아니고, 이웃 종교를 사랑하고 존중하니 잘했다고 예수님도 칭찬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였다.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참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 점 오해의 여지가 없다.

[행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독선이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독선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 포스터 모든 시대에 관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다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교리와 신조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독선적이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독선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은 그분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확실히 선언하신다.

[사45: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뿐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요8:54,5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나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았다.

[마26:63~66]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66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 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충실해야 한다. 자기가 해석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그분을 믿고 세상의 구주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신 예수를 믿고 그들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분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만이 구주이시다.

## 2.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칭호인데 그 기념에는 네 가지 기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 기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존재양식의 기념, 창조주로서의 기념,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그것이다. 오늘은 그 마지막 기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생명과 구원의 기념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구원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시36:9]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

원래 아담은 흙이었을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아담이 살아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생기 곧 생명의 기운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 자체이다. 그분 역시 여호와시라는 말이다. 요1:4은 시36:9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요일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고전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에도 살려주는 영이시고,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그분이 생명 자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의 길이 없는 것이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보장이 된다.

### 3. 생명의 줄을 끊어버린 첫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루시퍼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므로 그가 창조주와 상관없이 생명의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을 때,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을 때 그는 생명의 줄을 끊었다.

생명줄은 스스로 끊었지만 그 줄을 스스로 연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다. 자살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다.

[고후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선악과를 먹은 실제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다. 그를 떠나면 생명을 잃는다. 사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다.

[요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냐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생명이신 분께서 다시 생명을 주셔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이시고 태초에 흙으로 산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엡4:18) 당장 흠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이 지구는 완전히 황폐했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그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일정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한 번 죽게 된 것이다. 금빛 새벽 첫 시간에 말씀 드린 사실이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 4. 영원 전부터 계획된 구원

우리는 인류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말씀을 잘 듣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예정이라 말한다. 타락할 것도 예정하였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 다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주장을 전 예정설이라고 한다. 이 시간에 예정설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예정설이나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사람의 학설이다.

구원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롬16:25,26]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딤후1:2,3]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벧전1:19,20]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들은 다 구원의 복음이 영세 전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한다. “이제”가 언제인가? 베드로는 “말세”라고 했고, 바울은 디도서에 “자기 때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 자기 때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하면 무엇이 되겠다는 약속인가?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이다. 즉 자녀들을 낳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형편을 따라 가장 합당하게 그들을 돌보겠다는 약속도 된다. 그렇지 않은가? 부모라는 칭호에는 자녀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칭호의 기념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 있다. 자녀가 항상 훌륭하게만 생활하면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영광을 받지만, 자녀가 말썽꾸러기요 사고나 저지르면 그 문제들을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라는 칭호에는 사람들이 사망이 되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 사망이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원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망이 되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이제”라는 말과 “자기 때에”라는 말의 뜻이다. 이것을 타락한 사람의 위치에서 표현할 때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말썽꾸러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다 해결해주는 부모를 보면서 “나의 부모님은 이때를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표현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이런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사람이 타락

하게 되었을 때 복음으로 선포되었다. 마침내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것이다.

## 5.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

[딤후1:9,10]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기록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

[요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비록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여 사망이 되었으나 은혜로 사망 집행을 유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코 동등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의 구원과 생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그 이름에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억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존귀하게 부를 때에 이런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가! 이 이름 여호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이름이다.

[호12:5]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시8: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